

# Robert Yarbrough 박사, 목회서신, 세션 8, 디모데후서 1장

© 2024 로버트 야브로(Robert Yarbrough)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Robert W. Yarbrough 박사와 목회서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지침, 세션 8,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목회서신 연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 제목은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지침입니다. 이번 강의는 디모데전서에 이어 계속됩니다. 목회서신에 대한 더 긴 소개를 원하시면 잠시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디모데전서 강의로 가서 첫 번째 강의를 들어보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강의에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연히 디모데전서의 이 강의를 시작했다면 여러분을 요약하고 검토하고 심지어 테스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도표를 보셨고 이제 우리는 이 강의 시작 부분에서 본 내용을 기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PMEEC, PMEEC(복음의 준비, 나타남, 확장, 설명, 완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이라는 제목 아래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 복음에는 전공이 있고, 성경에도 주요 초점이 있으며, 그 초점은 아들의 계시를 통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메시지를 좋은 소식, 즉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 (euangelion) 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나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77~78%로 시작합니다. 구약은 복음을 위한 p-원가이고 그 단어는 준비(Preparation)여야 합니다.

복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둘째, 복음은 복음의 표현이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복음의 확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신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음은 어떤 모습인가요? 사도행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메시지, 심지어 예수님의 인격까지도 그분을 믿는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요 구원자임을 확증하는 공동체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로마 세계 전역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선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회중 수준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신념은 무엇입니까? 관행은 무엇입니까? 교회 존재와 교회 성장이라는 사도행전의 유산에 대해 지도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대답은 서신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설명이거나 복음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는 복음의 완성이다.

상황이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공백 없이 모든 단어가 포함된 이 차트를 제공했을 때 이 단어를 인용했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검토했으며 그것이 준비, 실현, 확장, 설명 및 완성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 성경 전체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그는 방패입니다. 나는 완벽하다고 말하고 일부 번역에서는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견디다. 신뢰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말씀과 평행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성경적 사고에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본질로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초월적인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했듯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면서 그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흠이 없듯이, 하나님 자신도 그분께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디모데후서 공부를 통해 우리가 당신께 피난처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흠 없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에게 매우 결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당신의 깨끗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은혜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한 손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방법을 상기시켜줍니다. 우선 우리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말하는 것에 대한 결정보다 우선하거나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제 이것을 언급했지만 포스팅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이 강의를 접하는 웹사이트에 게시될 것입니다. 확인해 보니 이 에세이는 아직 온라인에 있습니다. 평생 동안 독일에서 가르친 스위스 학자의 에세이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슬라터(Adolf Schlatter)였습니다. 그는 193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일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믿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그는 독일 대학의 대부분의 동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The Significance of Method for Theological Work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나는 그 에세이를 번역하고 그에 대한 논평을 썼습니다. 따라서 해당 링크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세이에서 Schlatter는 무엇이 있는지 보는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성경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의 해석학적 관찰, 즉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그것이 말하는 것에 대해 판단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 강요하는 대신, 훈련, 인내, 관찰, 훈련, 겸손, 그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봄으로써 자신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정말로 강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딱 맞는 성경의 말씀.

우리는 미국 정치에서, 특히 선거 기간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어느 정도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종의 전통이죠.

게다가 미국에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표를 얻기 위해 그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인용문은 당신이 그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완전히 맥락에서 벗어난 인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문맥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맥락 속에서 읽고, 그때 그때 거기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읽고 포장을 풀면서 본 것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디모데전서와 관련하여 성경책에 대해 일종의 방향을 잡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책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나타나는 빈도와 단어의 빈도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책의 초점. 그리고 서신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확신시키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종의 자유 연상이 구불구불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고 끝나며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의 주요 단어를 살펴보면 디모데전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입니다. 분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쿠리오스를 16번이나 주님으로 발견하고 종종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종종 바울이 주님이라고 말할 때 더 광범위하게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에서는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아들 하나님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둘이 하나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13번이고, 하나님 바로 다음에는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13번 있습니다.

거의 항상 그리스도-예수의 순서입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그것을 2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그는 메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예수입니다. 메시아적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서 믿음과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디도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여섯 가지 언급이나 디도미라는 단어의 사용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영어를 올려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7절, 그리고 저는 New American Standard를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NIV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우리를 소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훈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즉 영입니다.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생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한 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16,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것이 바로 '주다'라는 동사입니다. 보여주다로 번역되었지만 그것은 동사이고, 근본 의미는 '주다'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자비를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찰력을 주실 것이며,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부드럽게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어라는 동사 자체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없지만 실제로 디모데후서에서 여덟 번째로 자주 나오는 단어이고 첫 번째 동사는 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 일이나 행위에 대한 단어가 9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person) 또는 사람(man)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섯 가지 참고 자료가 있는데,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려진 것들입니다. 나는 그것이 한번은 더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번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거나 그와 디모데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그리스어로 일을 생각할 때 '선한 일', '선한 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디모데전서에 관해 선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6번 중 4번

사용되는 단어는 kalas 또는 kalon agon입니다. good work with kalon 이고 두 번은 agathos 입니다 .

디모데후서에서 그는 아가토스와 함께 아곤을 두 번 사용하고 칼로스와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에 대한 형용사 사용에 있어서 완전히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디모데전서 강의를 들어보라고 말하며 디모데후서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목회서신, 저자, 날짜 등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더 완전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디모데후서는 아마도 두 번째 로마 투옥 중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옥이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바울이 참수당했다는 유세비우스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고대인들이 전하는 소문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것과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기 가장 어려운 목회서신이다. 나는 첫 번째 강의에서 서구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디모데전후나 디도서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디모데후서에는 매우 개인적이며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는 점을 인정할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관계는 매우 개인적이고 대인관계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과 동료 사이에 있었던 일처럼 그럴듯한 이 모든 일을 왜 위조자가 꾸며낸 걸까요? 이 글의 목적이 거짓으로 기록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그럴듯한 세부 사항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실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바울이 실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자체로 들어가면서 내가 말할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으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나 사울에게 나타나신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사도가 되라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니라. 이제 우리는 이전 인사말에서 본 것과 동일한 기능 중 일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사도직입니다.

여기에 각주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훌륭한 성경 연구생이라면 고린도전서 4장 9-13절에 대한 언급을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떻게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지, 얼마나 학대를 받았지만 패배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멸시를 받았지만 낙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패배했지만 패배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치셨습니다.

따라서 현대적인 이해에서는 사도라는 용어가 때때로 사용되는데, 이 사도들은 부패하고 강력하다는 비난을 받고 돌아다니며 교회의 헌금이나 그와 같은 미친 일들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사도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안락한 삶과 은퇴할 곳, 어떤 종류의 휴가를 갈 것인지 결정하는 삶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가져가다. 사도들은 서로,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과 교제 속에 살지 않았다면 정말 인생에서 쓰러진 일을 겪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참아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겪은 일은 꽤 끔찍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는데, 그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도적 우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대사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이것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있는 사도적 메시지와 복음의 사도적 적용으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가 강조하는 점은 이 질그릇이 되는 모든 단점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리하며, 피조물이 위로하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마지막에 말했듯이 순간적인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절제된 표현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남은 생애이며 무거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낳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비참함이 있지만, 실제로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수난 주간이 끝날 때 자신의 기쁨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기쁨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당신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 당신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걷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과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과 제가 언급해야 할 또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16부터 12:10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열거하고, 그의 원수들이 어떻게 그를 쫓았는지, 먹을 것도 없고 안전도 없고 피난처도 없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설명합니다. 그에게 환상을 주셨으나 그 후에 육체에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할는지 내가 안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겻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것처럼 세 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오, 아시오, 아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나의 은혜요, 나의 은혜는 충분한. 나의 은총은 계속해서 너희에게 이러한 고통의 느낌을 주어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의 진정한 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힘은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힘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강하고, 그가 강해지기를 원하는 일, 즉 사도로서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시작 구절에서 탁월함을 봅니다. 노란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탁월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함을 보십시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주님을 가능한 언급으로 특권화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입니다. 바울의 글에서, 주님은 아마도 그리스도를 언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나서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글쎄, 거기에서 그는 구약의 말씀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신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언약의 언어도 생각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고대 세계에는 이름이 있는 신들과 신들, 신들, 여신들, 영들이 수백 명 있었고, 사람들은 많은 신을 믿거나 믿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한 분의 신이 있었고 그리스-로마 종교 학자들은 이 신들 중 어느 것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바다의 신이거나 지역의 신들이었고, 당신에게 보호를 제공할 수도 있고, 당신이 어떤 말을 하면 어떤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어떤 제물을 바칠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유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특정 신을 달래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에 대해 꽤 익숙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며,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는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창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존재하게 부르시고, 비록 우리가 모두 그분에게서 돌아섰지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언약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뿐 아니라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도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티모시.

내 사랑하는 아들. 지금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는 아버지, 아들, 형제, 자매, 자매, 자매, 형제, 형제 같은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깊은데,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의 가족 관계가 매우 위협을 받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많은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이별과 미움도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가정에는 잠언 말씀처럼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실제로 우리 가족보다 우리에게 더 가깝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반영된 언어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것이 디모데후서의 책꽂이라고 말할 때 언급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소망과 은혜가 북엔드였던 것처럼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곧 죽게 됩니다. 그는 꽤 확신하고 있으며 아마도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는 생명을 긍정한다. 그리고 그는 지상 생활의 끝이 자신의 존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일들보다 더 큰 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오프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NIV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조상처럼 섬겨주시는 하나님께 깨끗한 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 분명한 의식을 계속해서 말합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이전에 다루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는 조상을 언급합니까? 음,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전통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글을 통해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당신이 배신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아래에 관찰용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이 바울과 디모데를 반역자로 여겼기 때문에 깨끗한 양심이 반복됩니다. 더 나쁜 것은, 예수님은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득권층의 눈에 우리가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모세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거짓 선지자라, 즉 우리가 당신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는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세계 전체에서 당신은 소수 중의 소수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언약의 언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그가 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작별 인사였을 수도 있고, 티모시는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함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은 처음에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하였으니 이제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제가 관찰할 또 다른 점은 사도적 경건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주님과 가까웠다고 말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은 무엇입니까? 음, 추수감사절이군요. 그는 곧 죽을 뻔했지만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의 끝. 우리에게 만족할 것이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도 만족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타인의 긍정,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긍정, 디모데의 긍정의 형태로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을 갈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복음의 증표들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감옥에 있고 사형수에 처해 있다면 이런 가벼운 손길과 이런 종류의 낙관주의로 글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다른 방향성.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두려운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울에게 충성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부채질하도록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번에도 노란색은 신의 언어이고, 빨간색은 명령입니다. 부채질을 하라고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제 그는 외교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실제로 부채질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는 외교적으로 이런 이유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부채질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마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카리스마적이라는 단어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곧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디모데가 안정되고, 그가 받은 은사를 기억하고, 그가 받은 성령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성령이 우리를 안정시키고, 격려하고, 힘과 넉넉함의 영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기타 등등.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그분을 위해 갇힌 나에 대한 증언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디모데전서에서 그가 처음으로 디모데를 격려한 다음 그의 간증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가 격려하고 디모데를 하나로 모은 다음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 상기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를 상기시켜 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건함을 유지하도록 일깨워 주어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걸보기에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떤 번역에서는 거룩한 부르심, 구별된 구별된 삶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NIV는 그것을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삶은 우리가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봉사과 복음의 부르심에 구별되고 헌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나 인간의 성취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비밀입니다. 이제 나는 메시지를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예'라고 답하기 위해 어떤 단계를 밟았는지 알지만, '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자비의 신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그분 자신의 뜻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에게 허락된 것을 얻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구원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전 강의에서 바울이 구원을 묘사하는 것은 시간 이전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죽으셨던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때를 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폴 안에 있는 현재이고 미래 이며, 그는 어느 곳에서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먼저 창세 전에 말씀하신 것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내셨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것이라. 다시 말하지만, 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빛과 불멸이 복음을 통해 밝혀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부활하시려면 그분이 죽어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잠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죽거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고의적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무너뜨리심으로 죽음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할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해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무덤까지 가져가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죽음이 패배했음을 보여 주셨는데, 이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와 다가올 세상의 미래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약속된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곧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실제적이고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 곧 이 좋은 소식의 전령자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나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를 믿었는지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맡긴 것을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하는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나에게서 들은 것을 간직하십시오.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이 생각나네요.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바울은 내가 맡은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당신에게 맡겨진 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것이 건전한 가르침의 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교과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매일 복습하겠습니다. 시간표나 동사 패러다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전한 교훈을 지키라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 그러므로 당신은 이 가르침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사랑, 즉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시키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시키는 것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완전하고 풍부하며 만족스러운 명령입니다.

건전한 가르침의 패턴을 유지하십시오. 좋은 보증금을 지키세요. 그리고 그 예금은 또한 보물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네게 맡겨진 이 영광스러운 보화 곧 구원의 말씀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울의 경우,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 in us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 교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형은 분배형이기 때문에 거의 항상 우리 가운데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위해서는 개인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영어에서는 그것이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우리가 아니라 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개인, 단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기 우리 안에서 그것은 복수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교회적인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개인 안에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디모데의 소명감이 그의 사역의 확고함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격려를 받고 굳건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다시 그에게 전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일에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손이 얹혔습니다. 예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성령은 두려움과 도망의 비겁함이든, 게으름과 참여 거부의 비겁함이든, 비겁함을 심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힘과 사랑과 맑은 머리로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음 봉사는 우리를 협박에 빠뜨리는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키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8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축복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많은 뜨거운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놀라운 유익으로 누릴지, 또는 무엇을 매우 어려운 어려움으로 견딜지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 복음의 구원 사역은 세상적인 문제를 초월하며 심지어 죽음조차도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9절과 10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말하고 있으며, 그다음에는 사망을 멸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의 혼란, 세상의 반대, 왕국의 흥망, 국가의 흥망을 초월하며, 그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된 소식,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 바울 자신의 부르심과 그 결과는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그의 임명에 대해 말할 때 디모데를 결집시켜야 하며, 그가 고난을 받는 이유,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자기가 누구를 믿는지 어떻게 아는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맡긴 것을 그 날까지 지키라.

바울의 예는 디모데에게 직접적인 격려가 됩니다. 특히 디모데와 바울은 바울이 이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육상 경기에 관해 이야기하면 릴레이 경주가 있는데, 릴레이 경주에서 누군가에게 배턴을 넘기면 풀이 배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치셨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확증합니다.

티모시도 그래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받는 것에 대한 신실함은 사역의 열매 맺기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것에 충실함.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으로 네게 맡겨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사역의 열매를 맺는 기초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러한 교육 패턴과 이러한 보증금에 대한 깊은 기초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은 살아가는 것, 즉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건전한 가르침의 패턴을 확장하는 삶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의심하고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편지를 쓰고 있는 티모시는 말하자면 적어도 15년 동안 신입회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 있게 이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힘내라고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끝 부분에 이르면 불충성과 충성심의 예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의 패턴이 디모데전서와 비슷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에 얼마나 충분하셨는지에 대한 도전과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메내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경고입니다. 글썄, 여기서는 약간 다르지만 몇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먼저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그의 복음에는 배반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과 비슷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려는 부도덕한 동기로 그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그의 비용으로 그들은 경쟁적인 교회를 설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한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여기서도 일어납니다.

부겔로 와 허모게네를 포함하여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 다른 어떤 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안에 더욱 긍정적인 자비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주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학자는 여기서 그 표현이 오네시포로가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고 관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17절에 보면 로마에 계실 때 나를 만나기까지 열심히 찾으셨습니다.

그 날에 그가 주님의 자비를 받게 되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세부 사항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디모데와 관련된 정보의 일부이며 디모데가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티모시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오네시보로의 충성스러운 몸짓과 그가 치른 희생과 그가 보여준 용기와 그가 행한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부정적인 소식이 디모데에게 그가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하도록 격려할 수 있고, 또한 바울과 함께 그리고 바울을 위해 기도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으로 그는 버려졌습니다.

반면에 그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기도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살았던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도적 사역과 목회 사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관찰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큰 실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학교에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신학교에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교회 직원으로 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께 묶여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우리가 받은 가르침에 깊이 헌신해야 합니다.

제 생각엔 이 구절이 다른 어떤 구절보다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비록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내 정신에는 성경 구절의 히트 수를 집계하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종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주위를 둘러보며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북미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가졌었다고 생각하는 확신, 즉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릴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에게 신실했다면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의 삶과 교회에서 자신의 목적에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큰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우리는 종종 문제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짐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목자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때로 성격 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성격 유형은 슬픔에 빠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재 Susan Cain이 쓴 *Bittersweet*이라는 인기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 전체는 슬픈 것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을 것입니다.

글쎄요, 폴도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은 성격 유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lugubriou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슬프게 들리기도 합니다. 당신은 우울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특징적으로 '그렇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새로운 상황에서 위협적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물의 단점에만 집착한다면 교회에는 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네시보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헌정한 이 문단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면, 그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어떻게 격려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거나, 격려가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함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디모데후서 1장에 관해 말할 전부입니다.

이것은 Robert W. Yarbrough 박사와 목회서신에 대한 그의 가르침,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지침, 세션 8,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